

3/ 순례와 일본인

구마노고도(熊野古道)를 중심으로 *

박규태



구마노고도 나카헤치

박규태(朴奎泰)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종교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도쿄대학 대학원 종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양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신도와 일본인』, 『일본 신사(神社)의 역사와 신앙』, 『포스트-옵시데 일본사회의 향방과 스피리추얼리티』, 『라프카디오 현의 일본론』, 『일본정신의 풍경』 등 다수가 있고, 주요 역서로 『일본 문화사』, 『국화와 칼』, 『세계종교사상사 3』 등 다수가 있다.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08-362-B00006).

<https://doi.org/10.291514/ILBI.2018.18.100>

언젠가 사람들은 땅을 ‘대지의 모신(母神)’이라고 불렀다. 어머니 대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그것을 죽음으로 회수하기도 한다. 상반된 두 얼굴을 가진 땅은 그러나 지금도 ‘치유의 길’을 통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고 있다. 순례가 그것이다. 지중(地中)과 연결된 피뢰침이 벼락의 폭력을 중화시키듯이 땅은 자신을 밟고 넘어가는 순례자의 온갖 상처를 조용히 흡수하여 치유와 재생이라는 선물을 준다. 그래서인가 특히 1990년대 이래 포르투갈의 파티마(Fátima),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Santiago de Compostela), 프랑스의 루르드(Lourdes) 등 유명한 유럽 가톨릭 성지에의 순례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도 플로리다 주의 클리어워터(Clearwater) 성모순례가 성황을 이루고 있으며, 이슬람 하지(Hajj) 기간 중 메카(Mecca)의 순례자 수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글라스턴베리(Glastonbury)라든가 미국의 세도나(Sedona) 등 뉴에이지(New Age) 성지를 향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이안 리더(Ian Reader)에 따르면, 세계 곳곳에서 순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종교 부흥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관계가 있다. 즉 현대의 순례는 건강과 의료 기술의 발달, 경제발전으로 인한 장수, 경제적 여유, 관광의 확대, 교통수단의 발달 등과 같은 모더니티의 산물이자, 나아가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성장이라는 관념을 강조하고 장려하는 현대사회의 산물이라는 것이다.¹ 가령 산티아고 순례를 “관광화된 성지순례”²라고 보는 관점도 순례에 대한 관심의 현대적 증대와 모더니티를 연관시키는 이해와 상통한다.

그렇다고 해서 종교적 요인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다. 순례의 뿌리는 원래 종교에 있으며, 현대사회와 순례의 관계에는 뉴에이지 붐이라는 가 스피리추얼리티(Spirituality) 붐과의 연관성 등 관광인류학적 관점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일본

1 이안·리더, 「現代世界における巡礼の興隆」, 国際宗教研究所 編, 『現代宗教2005』, 2005, 280~300쪽.

2 岡本亮輔, 「信仰なき巡礼者」, 山中弘 編, 『宗教とツーリズム』, 世界思想社, 2012, 127쪽.

순례문화의 대표적인 성지 중 하나인 구마노고도(熊野古道, 총 212.2km)의 공간구조를 중심으로 거기에서 죽음과 재생이라는 종교적 의미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의 성지와 순례문화의 다양한 유형 및 구마노고도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일본의 성지와 순례

1) 일본의 순례 유형

일본의 경우도 1990년대 이후 시코쿠헨로(四国遍路)³라 불리는 구카이(空海) 관련 88개소 영장(靈場) 순례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 순례문화의 축은 구마노고도와 함께 종래의 순례를 대표해온 사이코쿠(西国) 33개소 관음영장순례⁴로부터 시코쿠헨로로 이행 중에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일본 종교사에서 최초의 본격적인 순례문화는 불교의 현세이익적인 관음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본 전국에는 수많은 관음영장이 산재해 있다. 그 관음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11세기경 긴키(近畿) 지역에서 발생한 사이코쿠 33개소 관음영장순례다.⁵ 그 후 12세기 오슈(奥州) 33개소 관음영장순례, 13세기 반도(坂東) 33개소 관음영장순례⁶와 에치고(越後) 33개소 관음영장순례,⁷ 15세기경에는 치치부(秩父) 34개소 관음영장순례,⁸ 16세기에는 쓰가루(津輕)

3 전설에 따르면 구카이가 42세의 액년 때 개창했다고 한다. 본존은 관음보살, 석가여래, 약사여래, 부동명왕 등 각종 불보살들이 망라되어 있다. 시코쿠헨로에 관해서는 박규태, 「일본인과 순례: 시코쿠헨로를 따라서」, 『종교문화비평』 9, 2006 참조.

4 교토를 중심으로 한 긴키 지역의 사찰순례로 11~13세기에 형성되었다. 개창자는 관음신앙을 부흥시킨 가잔(花山)법황(968~1008), 쇼쿠상인(性空上人, 917~1007), 도쿠도상인(徳道上人) 등 여러 설이 있다. 에도 시대 후반에 이르러 서민들이 순례에 참여하여 무수히 많은 도중기(道中記), 영장집(靈場集), 영가집(詠歌集) 등이 간행되었다. 반도 영장순례 및 치치부 영장순례와 함께 일본 백관음 순례 코스 의 하나다.

5 시기적으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관음순례는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을 제외한 규슈 지역 사찰순례인 규슈시코쿠(九州四国) 33개소 영장순례다.

6 관동 지역 전체에 산재하는 사찰순례로 1771년 가잔법황이 개창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순례길은 가마쿠라 시대인 13세기 중반에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7 니가타현 일대의 사찰순례.

8 치치부시를 중심으로 하는 사이타마현 일대의 사찰순례로 15~16세기에 형성되었다. 에도 시대 전기

33개소 관음영장순례⁹ 등, 고대 말부터 중세에 걸쳐 전국 각지의 200여 곳에 형성된 관음영장 사찰을 중심으로 순례의 관습이 정착되었다.¹⁰ 다양한 불보살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순례의 반 수 이상은 이런 관음신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불보살 순례와 더불어 불교적 순례를 대표하는 것이 천태·진언밀교 및 가미쿠라신불교와 관련된 조사(祖師)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조사순례다. 이는 특히 전술한 흥법대사 구카이신앙과 관련된 시코쿠 88개소 영장순례의 구카이(진언종)를 비롯하여 정토종의 호넨, 일련종의 니치렌, 정토진종의 신란(親鸞) 등에 대한 조사신앙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밖에 불교 관련 순례로 부동명왕이라든가 달마대사 혹은 비구니 사찰 등을 참배하는 코스도 있다.

이와 함께 특히 현대에 새롭게 형성된 불교 순례 코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93년에 시작된 간사이(関西) 하나노데라(花の寺) 25개소 영장¹¹이라든가 1990년에 개창된 도카이(東海) 36개소 부동존 영장¹² 또는 1989년에 형성된 시코쿠 49개소 약사영장¹³을 비롯하여 세토나이(瀬戸内海) 33개소 관음영장(1985년),¹⁴ 홋카이도 33개소 관음영장(1985년),¹⁵ 일본 달마회 8명찰(1984년),¹⁶ 한국 관음영장(1984년),¹⁷ 주고쿠(中国) 관음영장(1981년), 기타리쿠(北陸) 33개소 관음영장(1981년),¹⁸ 오사카 13불 영장(1978년), 18본산순례(1977년),¹⁹ 긴키 36개소 부동존 영장(1975년),²⁰ 니사(尼寺) 36개소 영장(1972년),²¹

까지는 수행자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선종 사찰이 중심이다.

9 혼슈 북단 아오모리현 지역의 사찰순례로, 지역 민간신앙과 결부되어 있으며 반 수 이상이 신사 안에 위치한다.

10 원영상,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한국종교학회, 『종교연구』 52, 2008, 106~107쪽.

11 대부분 꽃의 명소로 알려진 사찰들이 중심을 이룬다.

12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미에현과 기후현 일대의 사찰순례.

13 교토를 중심으로 한 긴키 지방과 미에현 등에 걸친 사찰순례. 약사여래를 모신 진언종과 천태종 사찰이 중심이다.

14 주로 십일면관음과 천수관음 등이 중심이다.

15 원래 근대기에 홋카이도 이주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순례 코스로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복원되었다. 본존은 시코쿠 33개소 관음영장과 동일하다.

16 교토에서 군마현에 이르는 지역의 달마상을 안치한 선종 사찰순례.

17 모두 조계종 사찰이며 관광을 겸한 일본인의 해외 순례 코스로, 구사카 다이코(日下梯宏)가 개창했다.

18 후쿠이현,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일대의 사찰순례.

19 교토부와 나라현 중심의 진언종 본산 사찰순례.

신시코쿠(新四国) 영장(1931년)²² 등이 그것이다.²³

이상의 불교 순례지는 일본의 성지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대중적인 형태의 순례로 신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칠복신(七福神) 순례를 빼놓을 수 없다. 많은 일본인은 새해가 되면 하쓰모우데(初詣)라 하여 신사나 사찰을 참배하며 한 해의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기원하는데, 그 하쓰모우데와 겹하여 칠복신 순례도 널리 행해진다. 무로마치(室町) 시대 후기에 교토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진 칠복신 순례는 현재에도 전국적으로 인기가 높다. 본래 중국계 복신인 운명의 신 포대(布袋, 호테이) 및 수명의 수호신 복록수(福祿壽, 후쿠로쿠주)와 수노인(壽老人, 주로진), 인도계 복신으로 악마를 퇴치하고 재물을 지켜주는 비사문천(毘沙門天, 비사문텐), 음악과 재복의 수호신 변재천(弁才天, 벤자이텐), 복덕의 수호신 대흑천(大黒天, 다이코쿠텐) 등에 일본의 어업과 상업의 수호신 에비스(惠比壽, 戎)가 더해진 칠복신을 참배하는 순례신앙이 15세기경부터 점차 명확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그 후 17세기 초에도 막부를 개창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칠복신을 숭배한 이래 에도(江戸) 중기인 8대 쇼군 요시무네(吉宗) 시대에 이르러 서민이 행락을 겸하여 널리 칠복신 참배를 함으로써 점차 칠복신 순례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에도 후기에 이르러 정월 1일에서 7일(혹은 15일) 사이에 칠복신을 참배하여 한 해의 행복을 기원하는 관습이 정착되었다.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칠복신 순례의 원형이다.²⁴

이와 같은 칠복신 순례는 현대 일본에서 가장 대중적인 신사신앙이라 할 수 있는 이나리(稲荷)신앙과도 이어져 있다. 가령 도쿄의 아사쿠사명소(浅草名所) 칠복신 순례 코스는 총 9개의 사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8번째

20 오사카부, 교토부, 고베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지역의 부동명왕 사찰순례.

21 긴키 지방에서 주부(中部) 지역에 걸친 비구니 사찰순례.

22 오사카부와 교토부를 중심으로 하는 긴키 지역의 사찰순례. 1931년 『오사카시사신보』, 『고베신문』, 『교토일일신문』 등이 주최가 되어 사이코쿠 33개소 영장에 들어가지 않은 사찰 중 쇼토쿠태자신앙과 관련된 사찰들을 선정하면서 시작되었다. 관음순례는 아니고 쇼토쿠 태자의 화(和)의 정신을 지향하는 순례로 유명 사찰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23 원영상, 「일본불교의 영장(靈場)과 성지순례문화 연구」, 106~111쪽 참조.

24 東京街歩き委員会, 『東京七福神めぐり』, NHK出版, 2002, 14~16쪽.

요시와라(吉原)신사와 9번째 야사키이나리(矢先稲荷)신사가 이나리신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617년 도쿠가와 막부는 에도 각지의 창녀촌을 니혼바시(日本橋) 닌교(人形)초 부근에 집합시켰다. 이것이 요시와라 유곽촌이고, 그 후 대화재로 인해 새롭게 조성한 것이 신(新)요시와라 유곽촌이다. 거기에는 예로부터 5개소의 이나리 신사가 있었는데, 1872년에 그것들을 합사하여 창건한 것이 바로 오늘날 이나리신 우카노미타마(宇迦之御魂神)를 모시는 8번째 코스 요시와라 신사다.²⁵

하나의 사찰이나 신사에 칠복신을 함께 모신 경우도 적지 않지만, 대개는 칠복신이 각각 별개의 절이나 신사에 모셔져 있다. 전국에 이런 칠복신 순례 코스가 무수히 많으며, 칠복신 마쓰리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도쿄만 보더라도 30여 개 이상의 칠복신 순례 코스가 있고,²⁶ 그중 신사와 관련된 것으로 18개의 코스가 있다. 이런 칠복신 순례 코스는 1980년에 시작된 미야코 칠복신(都七福神)²⁷ 등과 같이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2) 구마노고도의 개요

그러나 일본의 순례 성지 하면 역시 ‘일본 제일의 영장’이라고 알려진 구마노를 꼽지 않을 수 없다. 영장 구마노는 구마노강(熊野川)을 내륙으로 거슬러올라가 만나게 되는 구마노혼구대사(熊野本宮大社=本宮, 이하 혼구), 구마노강 하구 근처의 구마노하야타마대사(熊野速玉大社=新宮, 이하 신구), 나치 앞바다에 면한 구마노나치대사(熊野那智大社=那智, 이하 나치) 및 청안도사(靑岸渡寺)와 보타락산사(補陀洛山寺) 등의 삼사이사(三社二寺)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앞의 세 신사를 총칭하여 흔히 구마노삼산(熊野三山) 또는 삼소권현(三所權現)이라 한다.²⁸ 구마노삼산은 헤이안(平安) 시대 이래 당시 말법(末法)사상의 영향으

25 박규태, 『일본 신사(神社)의 역사와 신앙』, 역락, 2017, 515~521쪽.

26 「도쿄의 칠복신 순례 가이드」(<http://www.asahi-net.or.jp/~uy7m-ssk/>) 참조.

27 교토 시내 7개소의 사사로 구성된 순례 코스.

28 여기서 삼산이란 세 신사가 산에 위치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원에 붙여진 산호(山號)가 그렇듯이 신사에 붙여진 산호를 가리킨다. 또한 권현은 불보살이 중생구제를 위해 임시로 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뜻하는 신불습합적인 불교용어다. 이때 권(權)이란 임시(假)를 뜻한다.

〈표 1〉 '기이산지의 영장과 참배로' 등록자산목록

구분	자산	종별	연대	개요	소재지
구마노 삼산 (熊野三山)	구마노혼구대사 (熊野本宮大社)	유적	유사 이전	구마노삼산의 하나	와카야마현
	구마노하야타마대사 (熊野速玉大社)	유적 경관	유사 이전	구마노삼산의 하나 / 거석 송배에서 기원	와카야마현
	구마노나치대사 (熊野那智大社)	유적 경관	유사 이전	구마노삼산의 하나 / 폭포 송배에서 기원	와카야마현
	나치산 청안도사 (那智山靑岸渡寺)	유적	5세기 전반	폭포에서 출현했다는 관 음을 본존으로 하는 사원	와카야마현
	나치대폭포(那智大滝)	경관	유사 이전	일본 제일의 폭포	와카야마현
	나치 원시림(那智)	경관	유사 이전	신역으로 보호되어온 숲	와카야마현
	보타락산사 (補陀洛山寺)	유적	5세기 전반	관음정토인 보타락산으 로의 도해 거점 사원	와카야마현
고야산 (高野山)	니우쓰히메 (丹生都比賣)신사	유적	유사 이전	금강봉사의 진수사	와카야마현
	금강봉사(金剛峯寺)	유적 경관	816년	진언밀교의 수행도장	와카야마현
	자존원(慈尊院)	유적	9세기 전반	금강봉사의 영지 사무소 (政所)에 창건된 사원	와카야마현
	니우칸쇼후 (丹生官省符)신사	유적	9세기 전반	금강봉사 영지 사무소의 진수사	와카야마현
요시노산(吉野山)	유적 경관	유사 이전	산악신앙과 수행도의 성지	나라현	
요시노· 오미네 (吉野·大峰)	요시노미쿠마리 (吉野水分)신사	유적	유사 이전	요시노산의 지주신을 모신 신사	나라현
	긴푸(金峯)신사	유적	유사 이전	요시노산의 지주신을 모신 신사	나라현
	금봉산사(金峯山寺)	유적	12세기	수험도의 중심 사원	나라현
	요시미즈(吉水)신사	유적	12세기	금봉산사의 부속 사원	나라현
	대봉산사(大峰山寺)	유적	8세기 초	수험도의 근본수행도장	나라현
참예도 (參詣道)	오헤치(大辺路)	유적 경관	8세기	기이반도 서해안 참배로 (총 14.1km)	와카야마현
	나카헤치(中辺路)	유적 경관	유사 이전	교토와 구마노삼산을 잇 는 가장 중요한 참배로 (총 100.2km)	와카야마현 미에현
	고헤치(小辺路)	유적 경관	1573년 이전	고야산과 구마노삼산을 잇는 참배로(총 43.7km)	와카야마현 나라현
	이세지(伊勢路)	유적 경관	10세기 후반 이전	이세신궁과 구마노삼산 을 잇는 기이반도 동해 안 참배로(총54.2km)	와카야마현 미에현
	고야산케이미치 (高野參詣道)	유적 경관	9세기 전반	고야산에 이르는 주 참 배로(총 48.6km)	와카야마현
	오미네오쿠가케미치 (大峰奥駈道)	유적 경관	8세기 초	요시노·오미네와 구마 노삼산을 잇는 수행자의 수행의 길(총 86.9km)	와카야마현 나라현



〈그림 1〉
구마노고도 참배 루트

는 역사여래상이 안치되어 있었다. 오늘날 이자나미를 모시고 있는 나치에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구제해준다고 믿어온 관세음보살이 모셔져 있다. 이 중 구마노고도의 모든 길이 통하는 혼구가 산의 신과 산중타계를 표상한다면, 바다에 접해 있는 신구는 바다의 신과 해상타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산과 바다의 경계에 속한 폭포의 신으로서의 나치는 산중타계와 해상타계 모두를 포괄하는 상징적 공간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산중타계와 해상타계가 현저한 구마노에 대해 ‘산의 구마노’와 ‘바다의 구마노’로 대별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산의 구마노

필자가 구마노고도에서 걸었던 많은 산길 가운데 특히 인상에 남는 것이 다니치고에(大日越)와 다이몬자카(大門坂)다. 다니치고에는 혼구의 옛 터인 ‘오유노하라’(大齋原)를 거쳐 후술할 유노미네(湯の峰) 온천에 이르는 약 2킬로미터의 산길이고, 나치역 근방의 보타락산사에서 도보로 약 1시간 반 정

도 거리에서 시작되는 다이몬자카는 나치와 청안도사로 이어지는 구마노고도의 대표적인 석단길이다. 다니니치고에의 산길은 대낮에도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큰 빛’(大日)을 넘어가는(越) 산길이라고 명명한 것은 왜일까? 걸으면서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직접 대면하다 보면 언젠가는 내면의 큰 빛과 조우할 거라는 메시지일까? 이에 비해 가을비 내리던 다이몬자카의 이끼 낀 돌길은 무상(無常)한 슬픔과 아름다움도 아랑곳없는 무상무념이야말로 빛의 원천이라는 깨달음의 길로 내 마음 한구석에 각인되어 있다.

타계의 이미지가 강렬한 구마노는 근대까지 세계의 ‘구석’(隈, 구마)이었고 사령(死靈)들이 사는 ‘은국’(隱國, 구모리쿠) 또는 죽은 자가 은닉하는 ‘은야’(隱野, 고모리노)였다. 그곳은 신(神, 구마)³⁰의 거처로서 죽음과 관련된 전승과 사적이 많은 ‘죽음의 나라’이자 숲이 울창하고 비가 많은 ‘나무들의 나라’(木の国, 기노쿠니)로 칭해왔다.³¹ 이런 구마노가 고대 일본의 산악신앙을 대표하는 수험도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은 지극히 자연스러워 보인다.

천태계의 수험도는 본산방(本山方)이라 하여 역사적으로 원성사(圓城寺, 현 천태사문종(天台寺門宗) 총본산) 소속의 문적사원이었던 성호원(聖護院, 현 본산수험종(本山修驗宗) 총본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진언계는 당산방(當山方)이라 하여 제호사(醍醐寺, 진언종제호파(眞言宗醍醐派) 총본산)를 본거지로 했다. 앞서도 설명했듯이 이 수험도의 메카는 오미네(大峰) 산맥이다. 그곳은 수험도의 개조인 엔노오즈누(役小角)가 개창했다는 요시노로부터 구마노에 걸쳐 있는 광범위한 산줄기로, 옛날부터 이 산들에 들어가 하는 수행을 ‘오쿠가케’(奥駟)라 했다. 그들은 거기서 독경을 하거나 은거하여 불을 피우며 그 불속에 공양물을 던져 태우는 의식인 호마(護摩) 수행을 했다. 수험도의 산악수행은 남쪽 구마노로부터 입산하는 본산방의 순봉(順峰)과, 역으로 북쪽 요시노로부터 입산하는 당산방의 역봉(逆峰)으로 대별된다. 요컨대 구마노는

30 일본의 지명에는 구마(熊)가 들어간 지명이 많은데, 이 구마는 한국 계통의 지명으로 신을 의미하는 말이다. 久保田展弘, 『山岳靈場巡礼』, 新潮選書, 1985, 141쪽. 가령 공주의 원 지명은 구마나루(熊津)다.

31 町田宗鳳, 『原初の聖地・熊野』, 『仏教』 32, 法蔵館, 1995, 72쪽.

본산방 수험도의 성지다.³²

본산방이 구마노를 중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본산방 수험도의 시조인 지증(智証)대사 엔친(圓珍)이 나치대폭포(那智大滝)에서 천 일간 수행했다는 설화에 의한다. 높이 133미터로 일본 제일의 폭포라 알려진 나치폭포 수행은 산악 수행의 하나로서 일찍이 나라 시대부터 성행했다. 엔친 외에도 나치산을 개창한 라교 상인(裸形上人),³³ 엔노오즈누, 사이초, 구카이 등도 나치폭포에서 수행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구마노혼구의 참배로에는 ‘구마노 대권현’이라 적힌 깃발이 많이 꽂혀 있다. 권현은 명신(明神)과 함께 신불습합적인 신의 호칭이었는데, 메이지 정부 때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각지의 구마노 신사에서는 대개 구마노권현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데, 혼구의 경우는 희귀하게도 권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수험도 영장에서 신불분리 이전의 습합시대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조금씩 보인다. 현재 천태종 청안도사가 중심이 되어 ‘나치수험도’라는 이름하에 구마노 순봉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³⁴

고야산과 오미네산을 차지한다면, 구마노고도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두 산이 있다. 오미네오쿠가케미치의 길가에 위치한 다마키(玉置, 표고 1,076미터)산과 나카헤치 신구의 원천이라고 알려진 가미쿠라(神倉)산이 그것이다. 다마키산 정상에는 구마노삼산의 오쿠노미야(奥の宮)라 불리는 다마키(玉置)신사가 있다. 이 신사에는 진무천황 동정설화에서 구마노에 상륙한 후 병사를 쉬게 하고 승리를 기원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지금은 구니도코타치(国常立尊)를 주신으로 하지만, 예전에는 다마오키산 삼소권현이라 하여 지장보살, 천수관음, 비사문천이 본지인 신불습합의 성지로 번창했던 신사다. 경내에는 수령 3천 년 된 삼나무(神代杉)가 있으며, 섭사(攝社, 본사 주신과 관계 깊은 신을 모신 신사) 미하시라(三柱)신사의 제신 우가노미타마(倉稻魂神)는 이나라신

32 구마노고도와 수험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는 저자가 직접 오미네오쿠가케미치를 걸으며 그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저서 藤田庄市, 『熊野, 受験の道を往く』, 淡交社, 2005를 참조.

33 닌토쿠(仁徳) 천황 시대(약 1600년 전)에 구마노에 표착했다고 전해지는 인도승.

34 加藤隆久 監修, 『熊野大神』, 戎光祥出版, 2008, 138쪽.

의 원형이라고도 한다. 또한 오나무치(大日貴命)를 모신 말사(末社, 접사 이외에 본사에 소속된 신사) 다마이시사(玉石社)는 사전은 없고 대부분이 땅속에 묻힌 다마이시(玉石)가 바로 신체(神體, 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지는 사물)다. 그것은 지진을 일으킨다고 믿어온 땅 속의 거대한 메기를 제어하는 가나메이시(要石) 혹은 대지의 신의 현현처럼 보인다. 이때의 다마(玉)는 미타마(御靈)와 통한다고 한다. 돌의 영혼이란 어떤 것일까?

한편 가미쿠라산은 진무천황의 동정(東征) 전승으로 유명하다. 『일본서기』 신화에 의하면 히무카(日向)의 다카치호궁(高天穗宮)에 있던 진무천황 일행이 세토내해를 경유하여 가와치에 상륙한 후 아마타에 들어가려 했지만, 이코마(生駒)산 기슭 토호 세력의 강한 저항으로 기이반도를 남하하게 되었다. 이윽고 구마노의 미와노무라(熊野神邑)에 도착하여 아마노이와다테(天磐盾)에 올랐다. 이 아마노이와다테는 바로 현재의 가미쿠라산에 있는 신체 고토비키암을 가리킨다. 가미쿠라산은 신구의 원래 장소라고 알려져 있다.³⁵ 고토비키암은 신사의 원형인 이와사카(磐境) 그 자체로 에도 시대에는 간노쿠라히지리(神倉聖)라 불리는 수험자들이 모여든 성지였다.³⁶

3. 바다의 구마노

구마노 산길의 합류점인 혼구와 가미쿠라산 아래의 신구를 연결하는 것이 구마노강인데, 여기에 전술한 나치폭포와 후술할 보타락도해(補陀落渡海) 신앙까지 합치면 산, 강, 폭포, 바다라는 ‘물의 수험도’로서의 구마노 신앙이 보인다. 이는 다른 수험도 영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구마노의 특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구마노는 흑조(黑潮, 구로시오)의 성지다.³⁷ 멕시코 만류와 함

35 町田宗鳳, 「原初の聖地・熊野」, 74쪽.

36 久保田展弘, 『山岳靈場巡礼』, 132쪽.

37 구마노삼산과 흑조의 관계는 상상 이상으로 밀접하다. 흑조는 리아리스식 해안을 따라 나치와 신구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고, 혼구의 원래 장소인 오유노하리는 신구를 하구로 하는 구마노강이 도쓰강(十津川)과 오토나시강(音無川)이 내륙에서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함으로써 흑조의 영향권에 있었다.

게 세계 2대 해류인 흑조는 바다의 실크로드라 할 수 있다. 예전부터 이 흑조의 거대한 흐름이 기이반도 동쪽의 구마노 해안가를 지나면서 많은 물자와 사람과 사상을 운반했다. 가령 관음은 흑조를 타고 일본에 들어와 토착신들과 습합했다. 나치 청안도사의 전승에 따르면, 닌토쿠(仁德) 천황 무렵 인도에서 라교상인이 나치 해안에 표착하여 대폭포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폭포 수행 끝에 관음보살을 감득하여 청안도사를 개창했다고 한다. 실제로 구마노에는 표착신과 표착불이 많이 모여져 있다.³⁸ 일본 민간신앙에서는 이런 신불을 ‘마레비토’(客人)라고 부른다. 구마노 성지의 정신세계는 수험도, 밀교, 정토신앙과 함께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마레비토 신앙, 해상타계인 상세(常世, 도코요)³⁹ 신앙, 에비스 신앙, 보타락 신앙 등이 복잡하게 얽혀 형성된 것이다. 비단 구마노삼산뿐만 아니라 고야산, 요시노산, 오미네산 등의 영산 형성도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⁴⁰ 여기서 특히 보타락 신앙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치대사 소장의 〈구마노나치사참만다라〉(熊野那智社參曼荼羅)에는 나치 대폭포와 나치권현을 중심으로 묘호(妙法)산 주변까지 포함하는 전경 속에서 이런 보타락도해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만다라 하단에는 사방에 신사

久保田展弘, 『日本の聖地』, 講談社學術文庫, 2004, 34~35쪽.

- 38 구마노 해안의 아름다운 리아스식 포구와 시치리미하마(七里御浜) 해안에는 귀인 표착설화가 많다. 예컨대 금은보화를 실은 보물선과 함께 표착한 공주가 죽은 뒤 미인의 신으로 모셔진 치고츨(稚児塚), 큰 나무 한 그루를 타고 표착한 신을 신체로 모시는 요리키(寄り木)신사, 바닷속에서 끌어올린 관음을 모신 이다(井田)관음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구마노는 진시황의 명을 받아 불로불사의 선약을 찾아 봉래의 나라 일본에 왔다는 방사(方士) 서복(徐福)의 표착지로 유명하다. 서복 전승지는 이 구마노의 하다스초(波田須町)와 신구시 아스카초(阿須賀町)를 비롯하여 사가시(佐賀市), 가고시마현 이치키구시키노시(いちき串木野市), 야마나시현 후지요시다시(富士吉田市), 하치쥬(八丈)섬, 교토부 이네초(伊根町) 등 전국 20여개 소에 이른다. 이 중 구마노가 서복 상륙지로 유력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흑조의 존재 때문이다. 어쨌든 서복 전승지에서는 모두 서복을 침략자가 아닌 문명을 전해준 에비스(戎)신으로 모시고 있다. 구마노시 하다스초에는 서복의 흔적이 많다. 원래 이곳은 하타스촌(秦栖村)이라 하여 신라계 도래인 하타씨(秦氏) 일족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 현재 아스카초에는 구마노강 하구에 봉래산이라 불리는 산이 있으며, 신구역 옆에는 서복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 39 바다 저편의 ‘저세상’이자 ‘내세’로 관념된 상세(常世)는 불로불사 신앙에 입각한 중국 봉래산과 유사한 유토피아이다. 일본인의 관음신앙 수용에는 이런 상세와 오키나와의 ‘리아이카나이’(바다 저편의 유토피아)와 같은 해상타계 관념이 깔려 있다. 구마노에는 스쿠나비코나(少彦名命)가 바다 저편에 있다고 믿어진 일종의 유토피아, 즉 상세로 갔다는 전승도 있다.
- 40 加藤隆久 監修, 『熊野大神』, 128쪽.

의 입구에 도리이(鳥居)가 세워져 있고 중앙에 돛을 단 상자 모양의 배가 마치 당시의 유람선처럼 묘사되어 있다. 이 배야말로 관음정토인 보타락으로 향하는 도해선이었다. 그것은 우쓰보부네(空舟, 虛舟) 또는 도리부네(鳥舟)라고 불리기도 했다. 나치에 전해지는 『구마노연대기』(熊野年代記)는 868년의 게이류(慶龍) 상인을 비롯하여 1722년의 유쇼(宥照) 상인에 이르기까지 헤이안 시대부터 무로마치 시대와 에도 시대를 통해 보타락 산사의 승려 20명을 도해 상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치 하마노미야(浜の宮)의 보타락 산사를 기지로 하여 창이 없는 배가 남쪽 바다의 관음정토인 보타락을 향해 많은 도해승들이 출항했던 것이다. 이들은 모두 보타락 산사의 주지승이었다.

1552년부터 2년에 걸쳐 당시 일본에 거주했던 한 포르투갈 예수회 선교사는 입수(入水)하여 관음정토로 가기 위한 배와 보타락도해자의 모습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도해자는 오랜 기간 선 채로 고행을 계속한 끝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뚜껑을 단 배에 타고 바다로 나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포르투갈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Luís Fróis)도 보타락도해선에 대해 “배 밑에 큰 구멍을 뚫고 거기에 뚜껑을 단았다가 후에 그것을 열어 배와 함께 바다로 가라앉는다”고 보고한다. 이밖에 16세기 초의 도해승 닛슈(日秀) 상인은 오키나와에 표착하여 보타락원관음사(補陀落院觀音寺)를 세우고 나미노우에궁(波上宮)의 재흥에 진력했다. 한편 도해승의 고뇌를 묘사한 이노우에 야스시(井上靖)의 소설 『보타락도해기』(補陀落渡海記)의 곤코보(金光坊)처럼 살기 위해 도해선을 탈출하려다가 발각되어 강제로 수장된 승려들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나치만에는 곤코보섬이 존재한다.⁴¹

41 관음정토를 찾아 출항한 자는 이밖에도 더 있다. 『오처경』(吾妻鏡) 1233년(天福1) 5월 27일의 기록에는 미나모토노요리토모(源頼朝)의 가신 시모코베 유키히데(下河辺行秀=智定坊)의 도해 모습이 나온다. 그는 구마노에서 법화경 행자가 되었고 후에 보타락도해를 수행했다. 이 기록은 도해자가 30일분의 식량과 기름을 실은 집 모양의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 배는 바깥에서 못으로 밀폐되었다고 적고 있다. 또한 『발심집』(發心集)에는 처자를 버리고 고치현 도사(土佐)로부터 도해한 인물의 이야기라든가 고치현의 무로토(室戸)곶에서의 보타락도해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대개 전란이나 천재가 빈발하고 기근과 역병이 유행한 중세 후기에서 근세에 걸친 시기에 도해한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보타락도해는 시대고를 짊어진 측면이 있다. 도해담은 아니지만 『평가물어』(平家物語)의 다이라노고레모리(平維盛)도 구마노 해변가에서 입수한다. 久保田展弘, 『山岳靈場巡礼』, 137~140쪽.

그렇다면 보타락이란 무엇인가? 『화엄경』 〈입법계품〉(入法界品)에는 선재(善財) 동자가 53명의 선(善)지식을 추구하는 구법 여행에서 28번째로 방문한 것이 관음의 설법처이자 정토인 보타락산이라고 나온다. 이 보타락은 산스크리트어의 ‘포타라카’를 보타락가(普陀洛迦) 또는 보타락(補陀落)으로 음차한 것으로 남쪽 바다 저편에 있다고 간주되었다. 혹은 인도 최남단 고모린곶 근처 마라야산 동쪽의 포타라카산, 스리랑카의 포타라, 티벳 랏사 북부의 포타라산, 한반도의 낙산(洛山),⁴² 중국 저우산(舟山) 군도(郡島)의 보타산(普陀山, 푸퉁산) 등이 보타락정토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편 일본에도 보타락도해의 최대 출항 거점인 나치 외에 시코쿠의 무로토미사키(室戸岬)와 아시즈리미사키(足摺岬), 구마모토현 다마나시(玉名市), 닛코(日光)라는 명칭의 원천이 된 후타라(二荒)산과 주젠지코(中禪寺湖)를 포함하는 지역 등 보타락과 연관이 있는 곳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 그런데 보타락 도해담 중에는 임종이 가까운 승려를 배에 태워 바다로 떠내려보냈다는 전승도 있다. 이는 고대 일본에 존재했던 수장(水葬) 관습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수장 관습이 아니더라도 보타락도해에 종교적 자살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4. 구마노의 종교적 의미: 정화·죽음·재생의 사이클

1) 정화와 경계: 잇펜과 이즈미 시키부

보타락 산사 경내에 재현되어 있는 보타락도해선을 보면서 문득 “정화란 무엇일까?” “종교적 자살은 궁극적인 정화의 몸짓이었을까?” “온천의 나라 일본은 과연 정화의 나라일까?”라는 물음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 마쓰리

42 “옛날에 의상법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음보살의 진신사리가 이 해변의 굴 속에 있다고 들었기에 이름을 낙산(洛山)이라고 지었다. 이는 서역에 보타락가산(寶陀洛伽山)이 있기 때문이다.”(『삼국유사』 권제3, 제4담상, 낙산이대성 관음정취조신) 현재 강원도 양양의 오봉산(낙산)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낙산사(洛山寺)가 있다.

의 종교 신도(神道)가 가장 중시하는 종교적 가치는 바로 계가레의 정화에 있다. 그런데 구마노삼산만은 이런 정화의 가치를 다른 데서 찾고 있는 듯하다.

나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중 하나인 유노미네 온천에 두 번 묵은 적이 있다. 다이니치고에를 넘어 찾아간 두 번째 방문 때 묵었던 온천 여관의 내 방 입구에는 ‘잇펜상인’(一遍上人)이라 적힌 문패가 붙어 있었다. 여관 주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내 방 창문을 사이에 두고 여관 바로 앞에 시종(時宗)의 개조인 잇펜(一遍, 1239~1289)이 썼다고 전해지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잇펜상인 명호비>(一遍上人名號碑)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잇펜의 꿈을 꾸고 싶었다.

『잇펜성회』(一遍聖繪) 두루마리 그림(繪卷)에 기록된 이야기에 의하면, ‘후킨’(賦算)이라 불리는 시종의 용통염불 부적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촛추며 나눠주면서 중생 구제에 힘쓰던 잇펜의 구마노 여행 중에 한 승려가 그 부적을 거부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잇펜은 그날 밤 혼구 증성전에서 철야 하던 중 백발에 산악수행자(山伏) 차림의 구마노권현으로부터 “신·불신(信·不信)과 상관없이, 정·부정(淨·不淨)과 상관 없이 부적을 나누어주라”는 탁선을 받았다고 한다.⁴³ 이후 시종 신자들에 의한 구마노신앙의 유포와 함께 이 탁선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정·부정을 가리지 않는 신앙이 시종의 정토 신앙을 전국에 퍼뜨리는 원동력이 되었다. 예로부터 시종 계통의 사원에 흔히 구마노권현이 모셔져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나의 구마노고도 순례는 홋신몬오지(發心門王子)⁴⁴로부터 시작되었다. 웬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발심문은 굳이 불자(佛者)가 아니더라도 문자 그대로 마음이 발하는 하나의 출발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홋신몬오지를 출발해 1시간 정도 걸으면 후시오가미오지(伏拜王子) 터에 이르러 비로소 구마노강과 구마노 성지가 시야에 들어온다. 이 오지사의 명칭은 그 감격에 얽드

43 鈴木景二, 「庶民の熊野詣の諸問題」, 『密教文化』 218, 2007, 89쪽.

44 여기서 오지(王子)란 구마노권현의 어자신(御子神)을 뜻하는 말이다. 구마노고도 길가에는 ‘99오지’라 하여 곳곳에 순례자를 수호해주는 오지사(王子社)가 곳곳에 있다.

러 예배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에는 구마노 순례 전설에 인상 깊
 은 일화를 남긴 헤이안 시대 여류 가인 이즈미 시키부(和泉式部, 978~?)⁴⁵의
 공양탑이 세워져 있다. 그녀가 혼구를 눈앞에 둔 이곳에 이르렀을 때 신도
 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적부정(赤不淨)인 월경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날 밤
 월경의 계가레로 인해 참배할 수 없게 된 것을 탄식하던 그녀의 꿈에 구마
 노권현이 나타나 “월경과 상관 없이 나를 참배해도 좋다”고 말했다고 한다.
 구마노권현은 부정을 개의치 않고 그녀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혼구 경
 내에는 <이즈미 시키부 기원탑>이 세워져 있다. 여인구제를 주창한 이런 이
 즈미의 참배 설화는 무로마치 시대 이후 각지를 순행한 구마노계 산악수행
 자와 비구니들에 의해 전국으로 퍼졌다. 이와 함께 구마노 비구니가 퍼뜨린
 우왕보인(牛王寶印) 부적은 이윽고 에도의 요시와라에서 유녀와 손님이 주고
 받은 기청문(起請文)으로 크게 유행하기도 했다.⁴⁶

잇펜과 이즈미 시키부의 이와 같은 경험세계에서는 깨끗한 것(정)과 더
 러운 것(부정)의 경계에 틈새와 균열이 나타나 점차 확장되며, 눈을 씻고 보
 아도 더러운 것은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 더럽다는 말은 자기 그림자를 애
 써 외면한 채 타자의 그림자만 배제하려는 이들의 오염된 상투어일 뿐이다.
 경계는 더는 위험한 어떤 것이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삼투
 압적 입구가 된다. 그리하여 구마노삼산은 이제 현세와 내세 모두를 구제해
 주는 성지로 자리매김된다. 실제로 혼구·신구·나치의 본지불은 각각 임종
 시에 극락으로 맞이해주며 내세의 안락을 보장해준다고 여기는 아미타여래
 및 치병과 장수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약사여래와 천수관음이며, 그것들은
 다시 각각 서방 극락정토·동방 조루리(淨瑠璃)정토·보타락정토를 표상한다.
 그러니까 구마노는 현세의 정토세계이자 동시에 보타락 상세와의 경계를
 이루는 곳이라는 말이다. 예컨대 나치대폭포는 현세와 내세의 점점, 산중타

45 그녀는 분방한 연애편력의 생애를 보내다가 말년에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면서 전국의 성지를 순례
 했다고 한다. 여류 일기문학의 대표적 작품인 『화친식부일기』(和泉式部日記) 등을 남겼다.

46 구마노삼산은 여인구제의 성지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Max
 Moerman, *Localizing Paradise: Kumano Pilgrimage and the Religious Landscape of Premodern Japa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제5장 참조.

계와 해상타계가 이어지는 곳, 산과 바다, 산 자와 죽은 자, 인간세계와 신의 세계가 접해 있는 경계의 공간으로 관념된다.

2) 경계와 죽음: 하나노이와야와 삼죽오

나치대사에서 왼쪽으로 언덕을 올라가면 흔히 '여인고야'라 불리는 묘호산 정상에 아미타사(阿彌陀寺)가 나온다. 이 진언종 사찰은 여자의 출입을 금하는 고야산과는 달리 여자들도 납골할 수 있는데 죽음의 이미지가 농후하다. '사자의 구마노참배'라 하여 죽은 이들의 영혼이 반드시 이 아미타사를 참배하여 한 번 중을 올린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도 유명하다. 다시 말해 묘호산은 망자들의 구마노 순례지인 셈이다. 현지 사람들은 "밥 짓는 사이에 사자가 침향(檜)꽃 한 송이로 구마노를 참배한다"고 하여 죽은 자가 그 꽃 한 송이로 아미타사의 중을 올린다고 믿고 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묘호산을 참배하여 자기 후손들의 행복과 정도왕생을 기원한다는 이런 발상은 '경계의 상상력'이라 불러 마땅하다.

거기서 죽음은 어떤 경계를 넘어선다기보다는 오히려 경계 그 자체를 삶에 받아들이는 것을 뜻한다. 일본에는 동네 한가운데에도 묘지가 있다. 일상 가까이에 죽음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집 안에도 죽음이 산자와 공존한다. 집집마다 안치한 신단과 불단은 이를 상징적으로 잘 말해준다. 거기서는 먼 조상과 가까운 조상들이 날마다 후손들과 무언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본서기』는 "이자나미가 불의 신을 낳을 때 화상으로 죽고 말았다. 때문에 기이국 구마노의 아리마촌(有馬村)에 장사지냈다. 그곳 풍습에서는 이 신의 혼을 제사지낼 때 꽃이 피는 계절에는 꽃으로 제사지낸다. 또한 북을 치고 피리를 불고 깃발을 세워 노래하고 춤추며 제사를 지낸다"⁴⁷고 적고 있다. 이 아리마촌의 묘지가 현재 미에현 구마노시 해변가에 있는 하나노이

47 『日本書紀』上, 日本古典文学大系, 岩波書店, 1967, 90쪽.

와야(花の窟)라고 일컬어진다.⁴⁸ 그러니까 하나노이와야는 이자나미의 혼을 진무하기 위한 묘지인 것이다. 이 일대는 리아시스식 해안으로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다. 그것을 해인족(海人族)들이 풍장(風葬)의 장소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많다.⁴⁹

나무의 나라 구마노는 평야가 거의 없는 바위의 나라로 원초적인 이와 쿠라(磐座) 신앙이 뿌리 깊다. 진무 동정신화의 ‘아마노이와다테’라 말해지는 가미쿠라산의 고토비키암, 나치폭포, 수험자의 수행 장소인 오니구라(大丹倉), 기암동굴군인 오니성(鬼ヶ城), 일본 제일의 거대한 천연 고마이누(狛犬)인 사자암(獅子岩) 등을 둘러싼 거석신앙이 그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세 지 도중의 경승지인 시치리미하마(七里御浜) 해안에 돌출한 하나노이와야는 조몬 시대의 토우와 지모신상을 연상시키는 거석이다. 높이 45미터의 이 거석을 신체로 삼는 하나노이와야 신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신사로 본전은 없고 배전만 있으며, 구마노삼산의 아버지신이라고도 한다. 이 신사에서 매년 2월 2일과 10월 2일에 거행하는 마쓰리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하나마쓰리(花祭)로 유명하다. 이때는 약 170미터의 긴 밧줄을 신체인 거석 위에서부터 시치리미하마 해안까지 늘어뜨린다. 요컨대 하나노이와야는 일본 건국의 신화적 지모신인 이자나미의 죽음과 그 이자나미가 지배하는 죽음의 세계, 곧 황천국과의 경계를 나타내는 공간 표상이라 할 수 있다. 구마노가 ‘죽음의 나라’로 불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구마노삼산의 상징인 까마귀도 이를 뒷받침해준다. 이 까마귀는 흔히 야타가라스(八咫鳥)라 불린다. 혼구 참배로 입구에는 도리이 앞에 붉은 태양 모양의 원 안에 검은 까마귀가 묘사된 ‘어신기’(御神旗)들이 석단 양쪽으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구마노나치사참만다라>에도 나치대사 지붕에 까마귀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나치대사 예대제(例大祭, 해당 신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에서는 신관이 까마귀모자(烏帽)를 쓰고 구마노권현의 사자(使者)인 까마

48 한편 『고사기』는 “이자나미를 이즈모국의 하하키노(伯伎)국과의 경계에 있는 히바(比婆)산에 장례지냈다”고 적고 있다. 그러니까 신화 속에서 이자나미의 묘지는 구마노와 이즈모 두 곳인 셈이다.

49 町田宗鳳, 「原初の聖地・熊野」, 77쪽.

귀 역을 연출한다. 고래부터 까마귀모자는 구마노 산복의 상징이었다. 현재 <일본축구협회>도 까마귀 상징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고사기』 신화에서 야타가라스라는 까마귀는 진무천황을 구마노로부터 아마토(大和)까지 길 안내를 해준 신조(神鳥)로 나온다. 진무천황 일행이 아마토를 향해 가던 중 험한 산속에서 길을 잃었다. 그때 구마노에 사는 다카쿠라지(高倉下)라는 자의 꿈에 다카기대신(高木大神=다카미무스비)이 나타나 “지금 하늘에서 야타가라스를 파견할 터이니 그 까마귀가 안내하는 대로 뒤를 쫓아가도록 하여라”⁵⁰고 고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진무천황이 야타가라스의 안내로 무사히 요시노산을 넘어 아마토를 평정하여 천황으로 즉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산방 수험도의 시조 엔친을 오미네산으로 인도한 것도 야타가라스였다고 한다.

이 야타가라스는 본래 ‘큰 새’라는 의미인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구마노 삼산에서는 이를 삼족오(三足鳥)로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고사기』와 『일본서기』 원문에 삼족오라는 표기나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원래 삼족오는 태양 안에 삼족오(혹점)가 산다는 고대 중국설화에서 유래한 것인데, 이것이 삼족오를 국가의 상징으로 삼았던 고구려를 통해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튼 진무동정신화에서는 길 안내를 마친 야타가라스가 구마노로 돌아가 돌이 되었다고 전한다. 그래서 나치 본전 안에는 ‘가라스이시’(烏石)가 모셔져 있다.

구마노삼산에서는 고래 우왕보인이라는 유명한 부적을 배포해왔는데, 거기에는 까마귀를 도안한 그림문자가 묘사되어 있다. 우왕보인은 대략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뒷면에 기청문을 적는 관행이 널리 퍼지기도 했다. 어쨌든 우왕보인 부적에는 신의 사자인 까마귀를 조합한 디자인을 중심으로 ‘일본제일’이라는 문자가 적혀 있다. 전체적으로 난해하고 추상적인 문양이어서 의미를 알기 어렵지만, 실은 특정 문자를 나타내고 있다. 시대에 따라 변화가 있지만 현재 혼구의 우왕보인은 88마리의

50 『古事記』, 日本思想大系, 岩波書店, 1982, 121쪽.

까마귀로 ‘구마노삼보인’(熊野三寶印)이라 적혀 있고, 신구의 경우도 48마리의 까마귀로 ‘구마노삼보인’이라 적혀 있다. 즉 양자 모두 오른쪽에 ‘구마노’, 왼쪽에 ‘삼보’, 중앙에는 ‘일본제일’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인’ 모양이 묘사되어 있다. 한편 나치의 우왕보인은 72마리의 까마귀로 ‘나치다키보인’(那智瀧寶印)이라 적혀 있다. 역시 오른쪽에 ‘나치’(那智), 왼쪽에 ‘다키보’(瀧寶), 중앙에 ‘인’자가 도안되어 있다. 특히 이 나치 우왕보인의 제작은 매년 1월 1일 오전 3시에 신직이 나치폭포수를 본전에 바치고 2일에 그 물을 사용하여 목을 갈아 보인을 인쇄하는 등 고대방식 그대로 행해진다. 이런 우왕보인이 구마노 수험자와 비구니들에 의해 전국으로 배포되었다. 이와 함께 우왕보인 뒷면에 적은 기청문이 유행했는데, 만일 그 기청문의 서약을 어기면 구마노의 까마귀가 세 마리 죽고 그 자신도 피를 토하고 죽는다고 여겼다.

이와 같은 까마귀 상징은 구마노의 장례풍습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혼구의 발생은 원래 구마노강 상류에서 수장(水葬)되어 내려온 시체를 모신 것이 그 원형이라는 설도 있다. 구마노에는 수장과 풍장뿐만 아니라 까마귀에 의한 조장도 행해졌다고 추측된다. 즉 유기된 사체가 자연에 풍화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까마귀가 그것을 쪼아서 혼이 빨리 사체를 벗어나 저 세상에 갈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어쨌든 구마노에서 까마귀는 죽음과 매우 가깝다. 하지만 까마귀가 죽음과 관련된 흉조라는 속신과는 반대로 구마노에서는 성스러운 새로 알려져 있다. 왜일까? 구마노에서 죽음은 재생을 위한 전 단계로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3) 죽음과 재생: 유노미네 온천과 오구리한칸

『고사기』 신화에 따르면, 진무천황 일행이 현재의 와카야마현 신구시 근방에 상륙한 후 해로를 통해 이동했는데 폭풍우를 만나 구마노의 아라키사카노쓰(荒坂津)에 표착한다. 그런데 상륙 후 구마노촌 토지신의 화신인 곱이 토해넨 독기에 맞아 모두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이때 ‘구마노의 다카쿠라지(高倉下)’가 하늘에서 내려준 검을 헌상하자 다시 정신을 차렸다고 한다.

이 신화는 구마노가 ‘죽음의 나라’이자 동시에 ‘재생의 나라’로 여겼음을 시사한다.

음양도의 관점에서 보자면, 0시 방향에 있는 헤이안경으로부터 12시 방향에 위치한 구마노에 왕래하는 것은 북쪽의 태(胎)로부터 남쪽의 여음(女陰)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마노는 재생의 모티브를 내장한 ‘어머니의 나라’(妣國)로 관념된 것이다. 또한 전술한 하나노이와야는 풍요 다산의 제장으로, 여음처럼 생긴 동굴은 황천국의 입구이자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낳는 재생의 장소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가마쿠라 시대에서 무로마치 시대에 걸쳐 ‘개미떼의 구마노’라 불릴 만큼 수많은 순례자가 구마노에 몰려든 것은 이런 모성을 추구하는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이와 같은 구마노의 ‘재생의 메커니즘’에 사상적 통일성을 부여한 것은 나라 시대 이래 퍼진 신불습합사상과 거기서 파생된 본체인 불보살이 일본의 신으로 나타났다는 본지수적설(本地垂迹說)이다. 이때 죽은 영혼을 정화하여 저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종래 불교의 전통적인 역할이었다면, 그렇게 정화된 조상의 영혼을 수호신으로서 다시금 일상의 삶의 공간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특히 근세말 또는 근대에 이르러 새롭게 부여된 신도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 있다.⁵¹

특히 혼구에서는 ‘재생’이 더 설득력 있게 전해진다. 이유는 분명하다. 후술할 오구리한칸(小栗判官) 설화의 무대가 바로 혼구 옆의 유노미네 온천이기 때문이다. 혼구에서 약 3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이 온천은 혼구로부터 다이니치고에라 불리는 구마노고도 산길을 넘으면 나온다. 예나 지금이나 혼구와 유노미네 온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예전에는 순례자들이 혼구 참배를 하기 전에 이 온천에서 몸을 깨끗이 한 다음 원래의 혼구가 있던 오유노하라(大齋原)로 갔다고 한다. 현재의 혼구 예대제는 유노미네 온천에서 온천물로 정화한 동자를 신이 내리는 영매(依代)로 삼는 데서 일련의 의례가 시작된다.

51 町田宗鳳, 「原初の聖地・熊野」, 80~81쪽.

온천은 구마노신앙이 전국으로 전파되는 데에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혼구의 원래 장소였던 오유노하라는 온천의 들판을 뜻하는 ‘대탕원’(大湯原)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또한 ‘웅야’(熊野)라 적고 그것을 ‘유야’(湯野)라고 읽기도 했다. 온천(湯)이 곧 신(熊)으로 관념되었던 것이다. 에히메현의 도고(道後) 온천, 시마네현의 다마쓰쿠리(玉造) 온천, 효고현의 아리마(有馬) 온천 등과 함께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온천 중 하나로 꼽히는 유노미네 온천은 4세기경 국조(國造) 오아토노토지(大阿刀足尼)가 처음 발견했다고 한다. 탕화(湯花)로 생겨난 약사여래의 가슴에서 온천물이 솟아나왔다 하여 ‘유노무네’(湯の胸)에서 ‘유노미네’가 되었다는 것이다.⁵²

어쨌든 이런 유노미네 온천이 구마노의 재생 신앙과 결부된 것은 무엇보다 오구리한칸 설화 때문이다. 중세의 대표적인 설교절(說教節)⁵³ 중 하나인 이 설화는 오구리한칸과 데루테히메(照手姬)의 로맨틱한 사랑 이야기로 중세 구마노 참배의 처절한 일면을 잘 보여준다. 대신(大臣)의 적자 오구리는 구라마(鞍馬)의 비사문천이 점지해준 아이로 태어났다. 오구리는 72명의 첩을 취했지만 성에 차지 않아 대사(大蛇)의 화신과 성교하여 히타치국(常陸國, 이바라키현)으로 유배당한다. 그런데 사가미국(相模國, 가나가와현) 요코야마(横山) 집안의 아름다운 딸 데루테히메를 유혹하여 부부의 인연을 약속한다. 이에 화가 난 요코야마가는 오구리를 독살하고 데루테히메도 강물에 던져 버린다. 지옥에 떨어진 오구리는 염라대왕의 관대한 처분으로 사바세계로 돌아와 후지사(藤沢)의 승려에게 맡겨진다. 그런데 지상에 소생한 오구리의 모습은 지독한 문둥병 환자였다. 승려는 오구리의 가슴에 “이 자를 한번 끌어주면 천승(千僧)공양, 두 번 끌어주면 만승(萬僧)공양”이라고 적은 패를 걸어주었다. 이리하여 작은 마차에 실린 오구리는 공덕을 쌓고자 하는

52 하코네유모토(箱根湯本)의 구마노 신사 사전 입구에서 용출하는 하코네(箱根) 온천도 구마노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구마노 신사는 기이국의 구마노권현을 권청한 것인데, 거기서는 구마노권현을 ‘유야권현’이라고 부르면서 온천의 수호신으로 숭배하고 있다. 아리마 온천의 재흥에도 구마노신앙이 관련되어 있다. 加藤隆久 監修, 『熊野大神』, 168~169쪽. 한편 유노미네 온천에는 그 유래가 된 약사여래상이 안치된 동광사(東光寺)가 있다.

53 일본 중세에서 근세에 걸쳐 널리 행해진 이야기 예능 및 문예.

많은 이들에 의해 길에서 길로 이끌어졌다. 도중에 데루테히메는 남편인 줄도 모른 채 그의 마차를 끌어주었다. 이윽고 구마노의 유노미네에 도달한 오구리는 수험도 산복의 도움을 받아 온천욕을 하게 되었는데, 7일이 지나자 두 눈이 뜨였고, 다음 7일이 지나자 귀가 열렸으며, 그다음 7일이 지나자 눈이 보였다. 그렇게 49일이 지나자 오구리는 원래의 몸으로 치유되었고, 그 후 다시 데루테히메와 맺어져 83세로 왕생했다고 한다.

이때 오구리가 입욕했다는 온천 ‘쓰보유’(つぼ湯)가 지금도 남아 있다. 주변에는 마차를 맡았다는 ‘구루마즈카’(車塚)라든가 치유받은 오구리가 체력을 시험했다는 ‘역석’(力石) 등의 유적도 있다. 이 이야기는 “신불신을 막론하고 정부정과 상관없이” 모든 이를 평등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구마노 권현에 대한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생전에 많은 죄를 범한 오구리가 한번 죽은 후 소생한 다음 게가레(문동병)를 앓아진 채 완전히 재생했다는 이 설화는 실로 죽음과 재생 그리고 정화의 부단한 원환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5. 나오는 말: 순례와 일본인

내게 쓰보유는 770엔을 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공중욕탕을 넘어서서 하나의 무덤 같은 암자였다. 거기서 나는 태아처럼 웅크린 채 정화와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몽상했던 것 같다. 쓰보유 문을 나서니 다음 순서로 젊은 서양인 커플이 기다리고 있었다. 구마노고도를 걷다 보면 서양인을 많이 만나게 된다. 세계유산의 효과일 것이다. 순례길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사례는 이 구마노 참배로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의 순례길뿐이다. 거기에 순례와 관광이 결합된 소지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구마노삼산과 구마노고도에는 근래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관광인류학이나 순례관광학의 관점⁵⁴에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종교적 내음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54 대표적으로 현대 일본의 순례 붐을 종교 경험의 소비 혹은 철도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한 근대까지 거

근세에 폭발적·주기적으로 발생한 이세참배(伊勢参り)의 경우는 흔히 지적 되듯이 관광과 유흥의 측면도 강했으나, 고래 구마노에는 이세(伊勢)와 달리 유곽 등의 환락가는 없었다.⁵⁵ 원래 구마노 순례의 주목적은 정화·죽음·재생의 사이클 안에서 현세와 내세의 복락을 추구하는 종교적 실천에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⁵⁶ 이 점을 중시하여 본문에서는 구마노고도 순례에 대한 과거의 인식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구마노삼산은 중세 일본인의 순례를 대표하는 영장이었다. 하지만 전국시대 이후부터 점차 대중성이 약해지다가⁵⁷ 메이지기 신불분리령 이후 수험도가 금지되면서 결정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그 후 구마노 지역은 경승지로서의 가치를 부각시키면서 관광산업에 주력해왔다. 하지만 2004년의 세계유산 등록을 계기로 또 한번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구마노의 관광전략을 특징짓는 것은 영장과 관련된 ‘성성’(聖性)과 ‘정신성’의 강조에 있다. 그리하여 구마노 지역의 각 현과 지자체는 관광웹플랫폼 및 각종 미디어를 통해 ‘기도의 땅’이라든가 ‘성지’로서의 구마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⁵⁸

구마노 순례를 둘러싼 이런 현대적 변용과 관련하여 오카모토 료스케는 구마노가 세계유산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고도’라는 명칭조차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현대 지역사회 및 문화의 변화와 규제 위에 상상

슬러 올라가 종교와 관광의 밀접한 관계를 규명한 저서 門田岳久, 『巡礼ツーリズムの民族誌』, 森話社, 2013 참조.

55 島田裕巳, 『なぜ八幡神社が日本でいちばん多いのか』, 幻冬舎新書, 2013, 197쪽. 겐로쿠기(元祿期, 1668~1703)를 전후하여 이세참배 풍조가 고양되면서 이세신궁을 참배한 이들은 구마노삼산 자체보다는 사이코쿠 순례의 출발점(청안도사)으로서 구마노를 참배하게 되었다. 笠原正夫, 「近世の熊野参詣と西国巡礼」, 『鈴鹿国際大学紀要 CAMPANA』 11, 2004, 100쪽.

56 이세와 구마노의 차이는 역사성을 가진다. 지리적 인접성 때문일지도 모르겠으나 원래 고대에 이세와 구마노는 하나였다. 그러다가 1090년 시라카와 상황의 첫 번째 구마노 행차 때 최초의 구마노삼산 검교(檢校)로 원성사(園城寺) 승려 조요(増誉)가 임명된 이래 수험도가 구마노삼산을 총괄하게 되었다. 이로써 구마노는 불교화한 독자적인 교단을 조직하게 되어 이세와 구마노의 일체성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겨났다. 이세지로부터 기이지(紀伊路)에로 구마노고도의 공식적인 순례길이 바뀌게 된 것은 이런 전환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 五來重, 『熊野詣』, 講談社學術文庫, 2004, 24~25쪽.

57 전국시대 이후 구마노 참배의 쇠퇴 요인과 그 사회적 배경에 관해서는 구마노 오시(御師)와 참배자(檀那)의 중개 역할을 했던 구마노 센다쓰(先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논문 近藤祐介, 「熊野参詣の衰退とその背景」, 『人文』 14, 2015 참조.

58 星野英紀他 編, 『聖地巡礼ツーリズム』, 弘文堂, 2012, 94~95쪽.

적으로 복원된 것이 치유와 자기실현의 구마노고도⁵⁹임을 지적한다. 이런 관점에서의 치유와 자기실현은 더 이상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천 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스피리추얼리티 붐이나 또는 그 연장선상에서, 특히 3·11대지진 이후 현저해진 파워스팟 붐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종교적인 것의 현대적 변용일 수 있다. 혹은 서구의 유일신적 종교 관념과는 상이한 일본인의 ‘현세중심적·무종교적 종교 관념’의 발로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⁶⁰

사이코쿠 영장과 시코쿠헨로에서 칠복신 순례와 구마노고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신들이 생겨나거나 사라져버리기도 하는 일본 열도에는 어디든 성지가 넘쳐난다. 거기서는 어떤 장소든 성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세신궁을 참배하였네/어떤 신, 어떤 마쓰리가 행해지는지는 모르겠지만/그 감사함에 그저 눈물 흘릴 뿐”(『西行法師歌集』)이라는 사이교(西行, 1118~1190) 법사의 노래에서 엿볼 수 있듯이, 중요한 것은 신불(神佛)에 대한 종교적 지식이나 교양이 아니라 성지를 필요로 하는 감성 그 자체다. 일본인에게 순례란 그런 신불을 길가에서 발견하는 감성이 발현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감성은 결코 일상생활과 격리된 어떤 것이 아니다.⁶¹ 설령 관광이나 여행의 옷을 입고 재현된다 하더라도, 일본의 뿌리 깊은 순례문화는 여전히 일상 속의 죽음(게가레)이 마쓰리(하레)를 통해 정화된 생명력(게)으로 재생될 수 있다는 감성적 파토스가 로고스보다 더 일차적인 현실을 구성하는 일본인의 정신세계와 맥을 같이한다. 이런 순례의 상상력이 정치적 상상력에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직 이른 기대일까?

59 岡本亮輔, 「自己実現する熊野参詣者: 現代化される文化資源」, 『観光創造学へのチャレンジ』, 北海道大学観光学高等研究センター叢書 11, 2017, 77쪽.

60 현대 일본의 스피리추얼리티 붐과 파워스팟 붐 및 일본인의 무종교적 종교 관념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박규태, 『포스트-옴 시대 일본 사회의 향방과 ‘스피리추얼리티’: 옴 사건·일본교·네오-내셔널리즘』, 한양대학교출판부, 2015; 아마 도시마로, 정형 옮김, 『일본인은 왜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가』, 예문서원, 2000 참조.

61 上野誠, 『日本人の聖地観』, 『宗教と現代がわかる本』, 平凡社, 2016, 50~53쪽.